

종교·복지

■ 해외 선교 앞장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BF)'



김재홍(왼쪽에서 세번째) 목사와 UBF 회원들이 최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UBF 시온성세계선교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서 태동... 5,000명 거쳐 갔어요”

초교과적 대학생 선교기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에 있어 광주는 성지वाद 같은 곳이다. 'UBF의 성지' 광주에 최근 'UBF 시온성세계선교센터'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문을 열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즉 성지를 뜻하는 말이다.

UBF는 대학생 선교를 목적으로 1961년 미국인 선교사 사라 배리와 광주 대인교회 소속인 고(故) 이창우 목사에 의해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인근에 세워졌다. 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양성해 전 세계에 보냄으로써 세계복음화를 실천하겠다는 생각에서다.

UBF 탄생과 함께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80여개의 성경공부 그룹이 생겨났고, 1964년 제주도로 첫 선교사를 파견한

1961년 선교사 사라배리·故 이창우목사 설립 용봉동에 'UBF 시온성 세계 선교센터' 건립

뒤 전국의 대학에서 캠퍼스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현재 전국 100개 지부에 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린 후에는 1974년 서독에 간호사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여개국에 1천500여명의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UBF는 오는 2040년까지 선교사 10만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완공된 'UBF 광주 센터'는 총 20억원을 들여 대지 400평, 연면적 600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대강당과 선교사 숙소 등이 마련돼 있으며, 역사전시실에는 UBF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문서 등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개관식에는 창립자 사라 배리도 와서 축하해줬다.

담임목사인 김재홍(42) 목사는 “광주는 UBF의 역사에서 성지 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도 못지않게 활발하다”며 “역사가 깊은 만큼 지금은 성인이 돼 자리를 잡고 있는 회원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

주센터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은 500여명이며, 지금까지 거처간 회원 수는 5천명을 넘는다.

UBF를 거처간 회원들은 선교사 활동을 하거나 사회인으로 살며 직장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간호사 생활을 하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직장인 장정현(여·27)씨는 “UBF를 접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는데 대학 이후 삶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UBF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전진호(26·전남대 화학공학과 4년)씨는 “비전없이 살다 UBF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됐다”며 “취업 후에도 세상의 중심인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 칼럼



윤빈호

5·18과 빛고을 광주

1980년 5월18일 광주는 독재자들에 의해 빛고을에서 빨갱이 고을로 조작됐습니다. 독재타도를 외치던 입은 자갈이 물러지든지 또는 고문으로 신음소리만을 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치켜든 손들은 하나 돌씩 묶여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고, 억울함에 내몰려 돌과 화염병을 던졌던 사람들은 골라야의 총과 칼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 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답답함들이 모여서 아니 이런 때도는 한(恨)의 영혼들이 모여서 5월 25일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5월만 되면 어저저 머리가 아프고, 허전하고, 방황하고 싶고, 메스껍고, 5·18 당시의 거리를 걸으면 쫓기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5월 25일은 군사 독재가 막을 내렸어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재조명을 받았어도 우리를 가슴에 응어려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민주화가 외쳐진지 27년이 됐습니다. 5월 초부터 5·18 기념행사가 기획되고 치러졌습니다. 금남로 전조등 켜고 운행하기, 주먹밥 먹어보기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 등.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특히 5·18을 체현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 기념행사가 작년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재미없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념식이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여 있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5·18을 기념하면서 이 정신에 맞는 가장 좋은 기념식은 독재에 항거하는 제3세계 민주화 투쟁을 돕는 일이고 또한 이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신음하는 신홍 소외 계층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빛고을은 계급이 없다는 산(無等山)을 끼고 온 천하에 양 빛을 밝히는 고을입니다. 이 고을에서 분명히 일어난 5·18 민주화 투쟁도 이제는 27살의 나이답게 온 천하에 빛을 밝히며 광명의 세계, 고통과 시련과 죽음이 없는 천국의 세계를 미리 앞당겨 살아내는 고을이 됐으면 합니다. (천주교 곡성성당 주임신부)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27일 광주여대 운동장

영호남한미음성시화대회 88고속도 지리산 휴게소

(사)무지개다문화가족이 외국인노동자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2007 이주노동자 지역특화 문화축제'가 27일 오후 1시부터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린다. 중국,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유학생 등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최식을 시작으로 장기자랑, 사진 콘테스트, 사생대회 등 경연대회와 음식·놀이·공예 등이 포함된 체험 행사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전통 공예품들을 깨끗하게 수리해 판매하는 'WITH ASIA 아름다운 나눔장터'와 가족 신문 만들기, 인권·노동 상담, 이주민되기 기금 모금 등도 열린다.

광주·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원희 목사)는 대구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조문제 목사)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전 11시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광장에서 '제1회 영호남 한미음성시화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첫 행사를 갖는 '영호남 한미음성시화대회'는 영호남의 정치·경제·문화·예술의 사상을 아우르고, 성시화운동을 통해 각 지역이 한마음이 되자는 취지로 매년 열리게 된다. 부산 해운대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의 대표기사를 시작으로 대구 동산교회 김경수 목사, 무주 삼교교회 김승동 목사, 창원 한빛교회 송희구 목사 등의 기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513-011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설립 70주년

27일 경축제... 성가경연 등 다채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교구 설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빛 속에서'를 주제로 경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기찬, 거북이 등이 출연하는 '최소년 축제(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청년생활사가 경연대회(오후 1시), 최창무 대주교가 집전하는 경축미사(오후 3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대교구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전과 생

명나눔활동 홍보전 등이 펼쳐진다. 광주대교구는 70년 전 ▲성당 9곳 ▲신자수 3천567명 ▲신부수 22명(한국인 3명, 외국인 19명)에서 2006년 말 현재 ▲성당 109곳 ▲신자수 31만4천521명 ▲신부수 222명(주교 3명)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다. 천주교는 외적 성장과 함께 각종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기관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했는가 하면 일제시대와 6·25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질곡을 헤쳐 오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명중 6명 "주일미사 꼭 참석"

교구민 604명 대상 설문조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의 10명 중 6명은 주일 미사에 참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대교구가 교구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교구민 604명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종합리서치센터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또 월 2~3회 미사 참여자를 포함한 '미사

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70%였다. 그해성사의 경우 응답자의 60%가 연간 1회 이상 본다고 답했다. '1주일에 1회' 영성체를 하는 신자는 23.6%였으며, 성경읽기를 '하루 1회 이상' 하는 신자는 전체의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65%가 '자신의 삶의 표양'에 이웃들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정신도상으로 56.8%가 '사회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꼽았다. /정성필기자 camus@

대인동삼일부동산
(02-1120-1140, 521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02)972-8004, 010-7154-6996
첨단 지구 LC타워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011-609-0896
상가건물 매매
\*중장로 대지 75평 5층건물 24/1,700만 21억

한일지도판매(주)
(02)529-1409, 010-2466-1409
2007 최신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기피된 부분

호성공인중개사
(02)521-6024, 011-602-4207
대지매매(교회, 원, 투룸부지)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 접 평당 135만

토우드공인중개사
(02)384-1995, 011-622-1995
토지
\*신안동 800평 대지 도로로 평당 9만

다우공인중개사
(02)523-8114, 011-603-1308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향 대지 750평 3면도로 접 평당 35만

법원경매
지시경매컨설팅(주)
(02)62-226-0047
현장조사, 권리분석, 수익분석, 입찰신청, 대출안내, 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한 채테크